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중동 주요국(GCC+2) 경제의 7대 특징과 시사점

목 차

■ 중동 주요국(GCC+2) 경제의 7대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중동 주요국(GCC+2) 경제의 7대 특징	3
3. 시사점	11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 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중동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 주요국(GCC+2)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위상을 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원 이외의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중동 주요국은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한국은 원유의 80% 이상을 중동 주요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액 중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 주요국을 중심으로 중동시장의 7대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중동 주요국(GCC+2) 경제의 7대 특징

첫째, **자원의존 경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주요국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다.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석유화학산업 등 자원과 연관된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둘째,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UAE는 물류, 금융, 관광, ICT 등의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셋째,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라크도 황폐화된 국토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재건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넷째, 국부펀드를 이용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중동 국부펀드는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인구 대국으로 향후 중산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 소속 6개국은 선진국 수준의 높은 소득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 소비시장으로 유망하다. 여섯째, 최근 들어 **유가 급락으로 경제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원유 수출을 통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중동 주요국은 저유가 지속→경상수지 흑자 축소→재정 건전성 악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곱째,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는 IS의 활동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을 위한 제도적 환경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의 제거가 선결되어야 한다.

■ 시사점

첫째, 중동 주요국 경제의 특징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한-GCC 간의 FTA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GCC 국가의 산업다각화, 이라크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요 등 새로운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중동 지역 최대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중동 간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중동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저유가 지속, IS 활동, 이란-사우디 간의 경쟁 격화 등 정치·경제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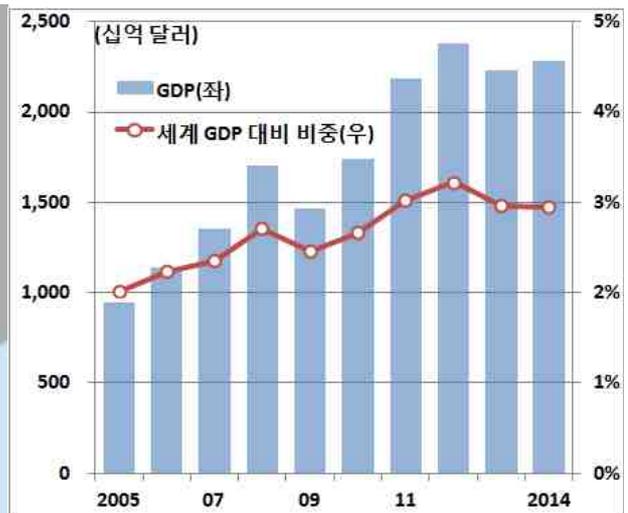
- (중동시장의 부상)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중동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소속 6개국과 이란, 이라크(이하에서 GCC+2)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신흥국에 해당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¹⁾ 소속 6개국은 중동 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함
 - 이란과 이라크는 GCC 국가들에 비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하지만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동 주요국(GCC+2)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위상을 점차 강화
 - GCC+2의 GDP는 2005년 9,487억 달러(세계 GDP 대비 2.0%)에서 2012년 2조 3,791억 달러(3.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 주요국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뿐만 아니라 산업다각화 추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소비시장 육성, 국부펀드 활용 등 등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
 -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난 이란은 대규모 인구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 중동 주요국(GCC+2) 위치 >



자료 : KOTRA(Global Window).

< 중동 주요국(GCC+2)의 GDP 추이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1)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중동 걸프만 연안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상호 협력 기구이며, 1980년대 초반 아라비아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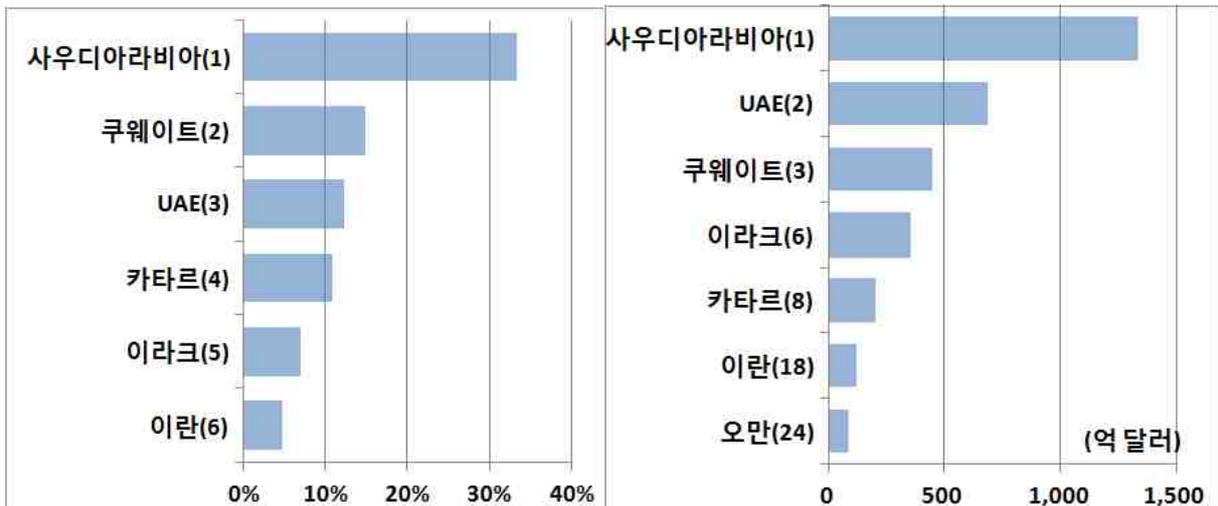
○ (중동의 중요성) 중동은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원이고, 최대의 해외건설 시장

-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한국의 국가별 원유²⁾ 수입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33.4%), 쿠웨이트(14.8%), UAE(12.2%), 카타르(10.9%), 이라크(7.0%), 이란(4.7%) 순서(2014년 기준)
 - 한편 천연가스³⁾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카타르(37.8%)와 오만(11.2%)이 각각 1위와 3위에 해당

- 중동 지역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최대 수주 시장
 - 지역별 건설수주(누적 7,167억 달러) 비중은, 중동(55.3%), 아시아(30.2%), 중남미(5.0%), 태평양·북미(3.8%), 아프리카(3.0%), 유럽(2.6%) 순서
 - 특히 중동 지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1,336억 달러), UAE(688억 달러) 등 GCC 6개국과 이라크(348억 달러), 이란(120억 달러)이 핵심 국가들에 해당

-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GCC 6개국과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중동 신흥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중동 주요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비중 > < 중동 주요국으로부터 건설 수주액 >



자료 : 무역협회(2014년 기준).

주 : 괄호 안은 수입 비중 순위.

자료 : 해외건설협회(누적 수주액 기준).

주 : 괄호 안은 세계 150개국 중 순위.

2) MTI 131 기준.

3) MTI 134 기준.

2. 중동 주요국(GCC+2) 경제의 7대 특징

① (자원의존 경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석유화학산업 등 자원과 연관된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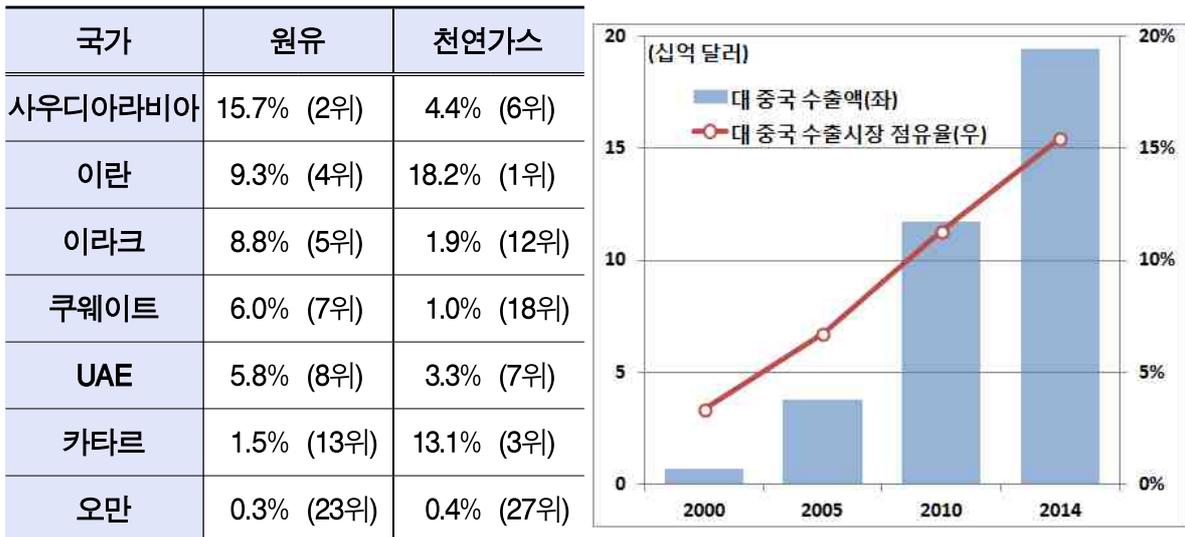
-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보유

-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매장량 세계 2위,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를 기록
- 원유 및 가스 관련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가 에너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

- 중동 주요국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나 원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중동의 석유화학제품⁴⁾ 수출액은 2000년 7억 달러(점유율 3.3%)에서 2014년 356억 달러(점유율 15.5%)로 급증

< 중동 주요국 원유·가스 매장량 비중 > < 중동 주요국의 對 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



자료 : BP(2014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괄호 안은 매장량 세계 순위.

4) HS코드 2706~2708/2901~2935/2942/3901~3911/4001~4002 합계로 계산.

② (산업 다각화 추진) UAE를 필두로 한 GCC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략 산업을 육성

- UAE는 중동과 세계 각 지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중계무역 중심지로 발전
 - UAE가 수입한 후 주변 국가에 재수출하는 금액은 2000년 261억 디르함에서 2014년 2,437억 디르함으로 연평균 17.3%씩 증가
 - 총수입액에서 재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음(2014년 기준 33.9%)

- 컨테이너 및 항공 물동량도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UAE는 두바이의 제벨알리(Jebel Ali)항 및 국제공항, 아부다비의 칼리파(Khalifa)항 등 대규모 항만과 항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0년 약 500만 TEU에서 2013년 약 1,900만 TEU로 연평균 10.9%씩 증가
 - 항공 물동량은 2000년 약 15억 ton-km에서 2013년 약 141억 ton-km로 연평균 19.1%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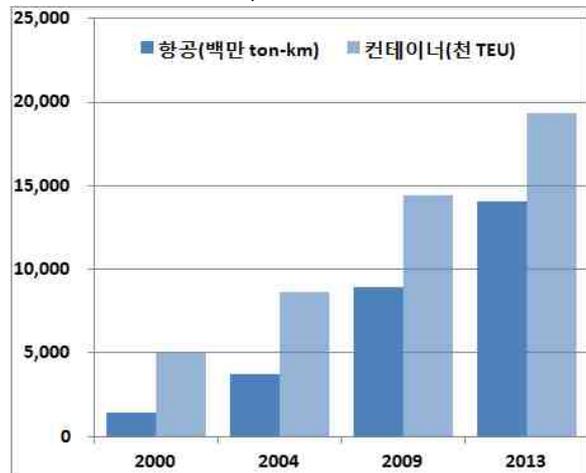
- 이 밖에도 UAE는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금융, 관광, 의료, IC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UAE 재수출액 및 비중 추이 >



자료 : UA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UAE 컨테이너, 항공 물동량 추이 >



자료 : World bank.

③ (대규모 인프라 수요)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전망

- 이란은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전망
 - 이란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3.9)은 세계 평균(4.2)이나 사우디아라비아(5.2), UAE(6.4) 등 주변국보다 열악한 상황⁵⁾
 - 열악한 인프라 수준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⁶⁾
 - 따라서 경제제재 해제가 본격화되면, 도로·항만·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이라크는 수차례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재건 사업이 활발
 - 미국 등과의 전쟁으로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파괴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
 - ‘2013~2017 국가개발계획’에서 2,7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교통·전력·상하수도 등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중동 주요국의 인프라 수준 >

	도로	항공	항만	전기	종합
UAE	4.6	6.7	6.5	6.6	6.4
바레인	5.4	5.2	5.7	6.2	5.6
오만	6.0	5.1	5.2	6.3	5.4
카타르	5.0	6.0	5.4	6.5	5.4
사우디	5.3	5.1	5.0	6.2	5.2
쿠웨이트	4.6	3.8	3.9	5.0	4.3
이란	4.1	3.2	4.0	5.1	3.9
세계평균	4.0	4.4	4.1	4.5	4.2

<이라크 인프라 투자 전망(2013~2017)>

(단위: 억 달러)

분 야	금 액
교통	460
에너지	800
전력	900
상하수도	150
보안·IT	175
의료·기타	265
합계	2,750

자료 : WEF(2014-2015).

주 : 7점 만점 기준.

자료 : 이라크 경제기획부(KOTRA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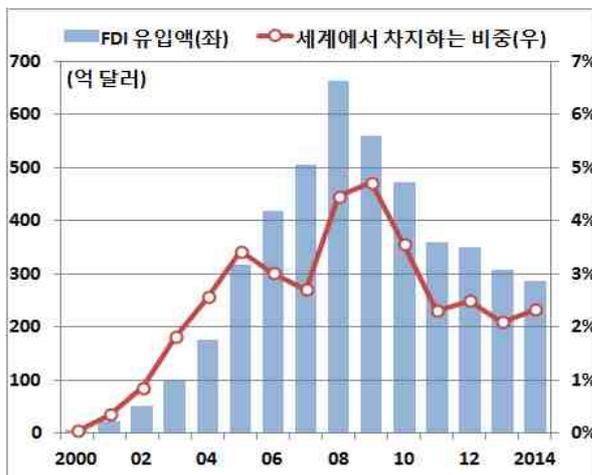
5) 이라크의 인프라 수준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음.

6) 예컨대, 이란은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부재하여 UAE의 항만을 활용해서 수입품을 환적하고 있음.

④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 활발) 외국인의 對 중동 투자는 감소, 중동 주요국의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투자는 증가

- 對 중동(GCC+2) FDI 유입액은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FDI 유입액은 2000년 59억 달러에서 2008년 664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286억 달러에 머물고 있음
 - 對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액은 2008년 395억 달러에서 2014년 80억 달러로, 동기간 對 UAE 투자액은 137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로 감소
 - 對 이란 투자액은 21억 달러(2014년)에 불과하지만, 경제제재 해제 이후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對 이라크 투자액(2014년 48억 달러)은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되어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음
- 중동 주요국은 국부펀드를 이용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중동 국부펀드는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동(GCC+2) 국부펀드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약 2조 8,300억 달러로 세계 국부펀드 총자산(7조 1,930억 달러)의 39.3% 비중을 차지⁷⁾
 - 세계 10대 국부펀드 중에서 UAE의 ADIA, 사우디아라비아의 SAFA Foreign Holdings 등 4개가 중동 국가들이 운용하는 펀드

< 對 중동 FDI 유입액 추이 >



자료 : UNCTAD.
주 : 중동은 GCC+2를 의미.

< 세계 10대 국부펀드 >

(단위: 억 달러)

국가	펀드명	자산 규모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8,249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730
중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7,467
사우디아라비아	SAMA Foreign Holdings	6,686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5,920
중국	SAFE Investment Company	5,470
홍콩	Hong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4,179
싱가포르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3,440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2,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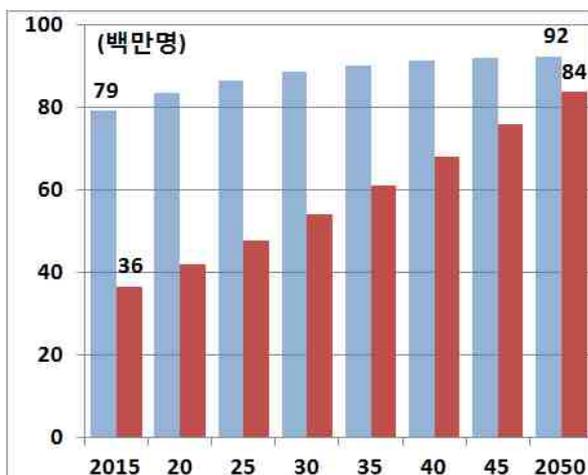
자료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주 : 2015년 11월 기준.

7)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의 2015년 11월 통계 기준.

⑤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 이란과 이라크의 중산층 소비시장, GCC의 고소득층 소비시장이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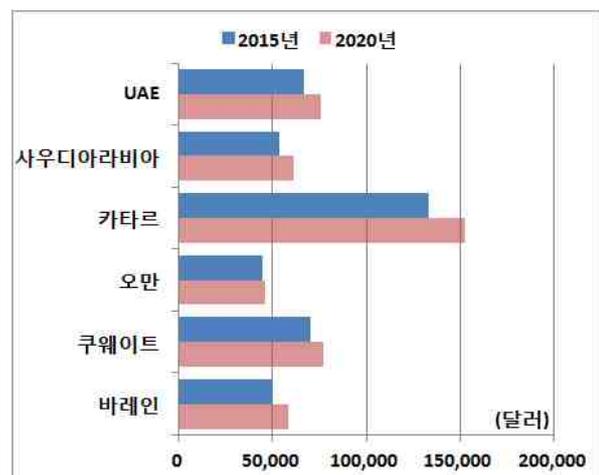
- 이란과 이라크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인구 대국으로 향후 중산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이란은 중동 지역 최대의 인구 대국(2015년 7,900만 명)이며,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9,200만 명에 이를 전망
 - 수차례의 전쟁과 내전을 겪어왔던 이라크의 인구는 2015년 기준 3,600만 명 수준이며, 향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8,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시장 개방 과정에서, 이라크는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중산층 인구가 급증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소속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소득 수준을 향유
 - GCC 소속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2015년 3,200만 명)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규모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⁸⁾
 - 소득 수준(명목 구매력 기준)은 카타르 133,000 달러, 쿠웨이트 70,000달러, UAE 67,000 달러 등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 소비시장으로 유망
 - 최근에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부상

< 이란과 이라크 인구 전망 >



자료 : United Nations.

< GCC 국가들의 일인당 소득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주 : 명목 구매력 기준.

8) UN(United Nations) 통계에 의하면, UAE 920만 명, 오만 450만 명, 쿠웨이트 390만 명, 카타르 220만 명, 바레인 140만 명(2015년 기준).

⑥ (유가 급락에 따른 경제 불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악화 등 경제적 불안 요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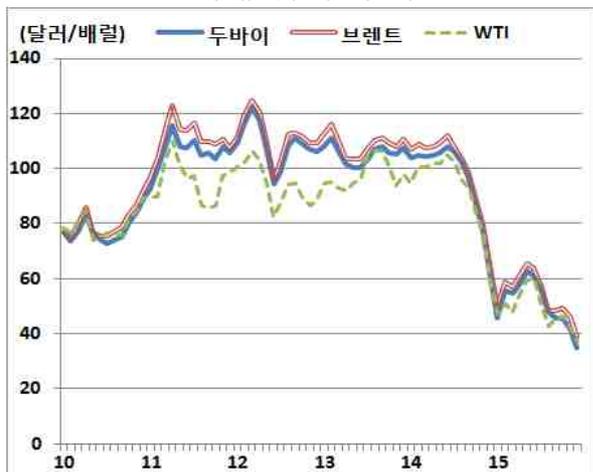
- 2014년 하반기 유가 급락 이후, 유가 하락세가 지속

- 두바이유 가격은 2014년 8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으나, 2015년 12월 배럴당 35달러 수준으로 하락
- 2016년에도 이란의 원유 증산,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 지속 등 유가 하락 요인이 상존
- 반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어 정정불안이 심화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음

- 자원의존 경제인 중동 주요국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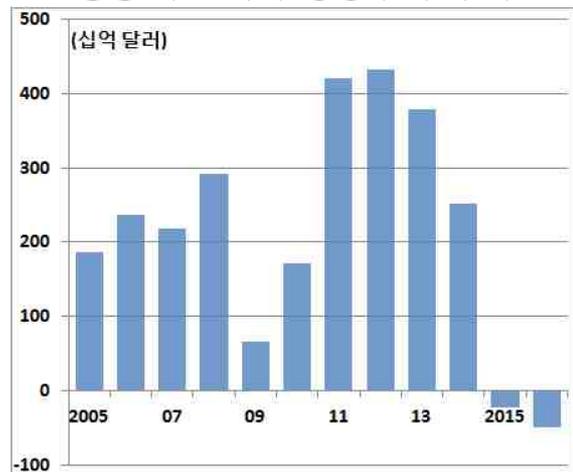
- 중동 주요국의 경상수지 합계는 2013년 3,789억 달러에서 2014년 2,523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2015년에는 22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될 전망
- 중동 주요국들은 원유 수출을 통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
-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상수지는 2013년 1,354억 달러 흑자 → 2014년 769억 달러 흑자 → 224억 달러 적자로 변화했고, 동 기간 재정수지는 1,616억 달러 흑자 → 961억 달러 적자 → 5,113억 달러 적자로 악화⁹⁾

< 국제 유가 추이 >



자료 : 석유공사 페트로넷(Petronet).

< 중동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주 : 2015년과 2016년은 전망치.

9)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5.10)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수입과 지출 기준.

⑦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 잠재)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 IS로 인한 정치적 혼란 가중, 경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여건 취약 등 위험 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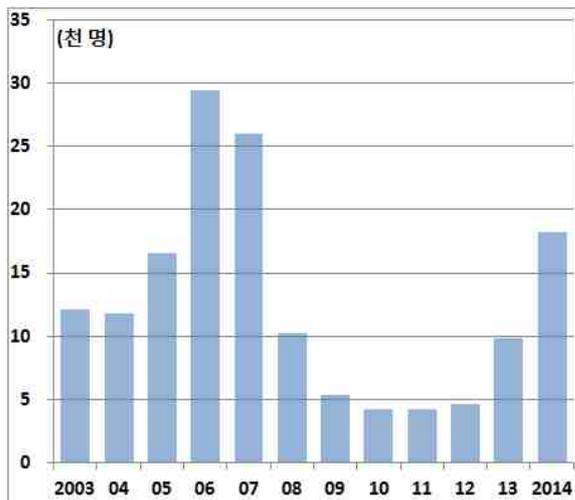
- IS(Islamic State)의 활동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테러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2006년 29,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 점차 감소 추세
- 그러나 시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IS 반군 활동이 이라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내전 상태(2014년)에 돌입
- 이로 인해 2012년 4,600명까지 감소했던 민간인 테러 희생자는 2014년 18,200명으로 다시 급증

- 이라크의 기업경영 환경은 중동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

- 이라크의 기업경영 환경은 전 세계 189개 국가 중에서 161위 수준으로, 주변의 이란, 사우디, UAE에 비해서 취약
- 이라크는 관료들의 뇌물수수, 횡령 등이 만연하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가 최하위권(2014년 기준 174개국 중에서 170위)에 해당
- 따라서 재건사업, 석유개발 등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이 시급

<이라크의 민간인 테러 사망자 추이>



자료 : Iraq Body Count(IBC).

<중동 주요국의 기업경영 환경 비교>

	이라크	이란	사우디	UAE
창업	154	87	130	60
건축 허가	147	69	17	2
전력 공급	106	88	24	4
재산권 등록	117	91	31	10
신용 확보	181	97	79	97
투자자 보호	115	150	99	49
세금 납부	59	123	3	1
국가간 무역	178	167	150	101
계약 집행	122	62	86	18
파산 처리	189	140	189	91
종합	161	118	82	31

자료 : World bank(Doing Business 2016).
주: 총 189개 국가 대상 순위.

< 참고 > 이란 경제의 주요 특징¹⁰⁾

○ 이란 경제의 부상

-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2015년 7월 주요 6개국과의 핵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가 본격화
 - 이에 따라 중동의 거대 시장인 이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성장 잠재력

- 경제제재 해제 이후,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모색
 - 이란은 원유 매장량(전 세계의 9.3%)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18.2%) 세계 1위
 - 에너지 자원 이외에 철광석, 구리, 우라늄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게 매장
- 중동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이란은 중동 지역 최대의 인구 대국(2015년 7,900만 명)이며,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9,200만 명에 이를 전망
 - 시장개방 과정에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중산층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투자 수요가 발생
 -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세계 평균을 하회하며, 열악한 인프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 도로·항만·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
 -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투자에 의존해왔으나, 경제제재 강화 이후 자본 유입이 급감
 - 2014년 對 이란 외국인 투자액은 21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향후 자원개발 관련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급증할 전망

○ 불안 요인

- 전형적인 자원 의존 경제이며, 산업 다각화 추진은 미미
 -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소속 국가들에 비해 산업 다각화 추진 성과는 부진
- 저유가 지속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악화 심화
 - 원유 수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전략은 저유가가 지속되면 차질이 불가피
 -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유 판매를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 심화 우려
 - 이슬람 시아파가 대부분인 이란과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중동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10) 본문 중 이란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3. 시사점

- 첫째, 중동 주요국 경제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
 -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
 - 중국-GCC 간의 FTA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이 중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GCC 간의 FTA 협상을 서두를 필요
 - 또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뿐만 아니라 중동의 대규모 국부펀드 자금을 국내 투자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둘째, 자원개발, 산업다각화,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 잠재력에 주목
 - 자원개발 시장은 각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기회에 해당
 -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육성하는 산업들 중에서 ICT, 의료 서비스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
 - 이라크 재건설시장과 중산층 시장, GCC 소속 국가들의 고소득층 소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셋째,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이란은 향후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 지역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중산층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
 - 또한 아라비아반도,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 등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에 적합
 - 이란 국민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우호적이므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함
 - 이란에서 인기가 많은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

- 넷째, 한국과 중동 주요국과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한국과 중동 주요국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교류 증대뿐만

-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중동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각국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 다섯째, 중동 주요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 현지기업과의 합작이나 정보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 저유가 지속, IS로 인한 정치적 혼란 가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 격화 등 정치·경제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글로벌 기업 진출의 가속화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HRI**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